

『備急灸法』 중 「騎竹馬灸法」에 대한 考察

(주) 한국콜마¹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² · 한국전통의학연구소³
신재혁¹ · 송지청² · 엄동명^{2, 3*}

A Review on 「Qizhumajiufa」 in 『Beijijiufa』

¹Colma Korea

²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⁴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hin Jaehyuck¹ · Song Jichung² · Eom Dongmyung^{2, 3*}

Objective : 「Qizhumajiufa」 is one of the chapters in 『Beijijiufa』 and is also a name of method in moxibustion. Because it's extraordinary way of form to find moxa-point out, there are several books that commented qizhumajiufa in history. We will try to explain how qizhumajiufa is showed in medical books(especially in 『Beijijiufa』).

Method : We try to find qizhumajiufa in medical books and its contents in those books.

Result : In 1170, 『Weijibaoshu』 mentioned qizhumajiufa for the first time. In 1245, 『Beijijiufa』 also mentioned qizhumajiufa much more in detail with herbal prescriptins for disease related to qizhumajiufa. Besides, several books of moxa and acupuncture mentioned qizhumajiufa include Korean medical books.

Conclusion : Qizhumajiufa is expert methods of moxibustion for abscess. In history it was a just methods of moxibustion but later it was mentioned a name of moxa-point.

Key Words : 『Beijijiufa』, qizhumajiufa, moxibustion method, Sunjuqing

I. 序 論

「騎竹馬灸法」은 『備急灸法』(孫炬卿, 1245)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은 聞人耆年의 「備急灸法」과 「騎竹馬灸法」, 「竹閣經驗備急藥方」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備急灸法」은 22개의 응급질환에 대하여灸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하였다. 혈자

리는 대부분四肢關節 이하 부위이며, 주로經外奇穴을 사용하였다. 그 특징은 19개의圖解를 통해穴位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騎竹馬灸法」은癰疽, 發背 등의 외과질환을 치료하는灸法과 처방을 기록하였는데, 取穴하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8개의 처방은歷代醫家들의癰疽疾患 치료에 효과가 우수한 것들만 인용하여 모아 정리하였다. 「竹閣經驗備急藥方」은 36개의 병증에 대한 처방으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응급 질환에 치료법을 기록한 것이다. 사용된 방법으로는 붙이거나 발라서 치료하는法, 술에 타서 복용하는法, 洗法, 熏喉法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2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haksan@wku.ac.kr
Tel: 063-850-6941 Fax: 063-851-6941
접수일(2011년 9월 05일), 수정일(2011년 9월 05일),
게재확정일(2011년 9월 23일)

기존 연구로는 『備急灸法』에 끼친 葛洪과 孫眞人の 영향,¹⁾ 急性疾患의 治療理論과 臨床의 結合,²⁾ 22個의 急性疾患의 引用數를 조사³⁾, 『千金方』 인용문에 대한 考察⁴⁾ 등이 있는데 대부분 聞人耆年の 「備急灸法」에 관한 연구에 제한되어 있고 「騎竹馬灸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騎竹馬灸法」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備急灸法』에 대한 소개

『備急灸法』은 南宋의 醫學者 聞人耆年이 1226년에 저술한 專門灸法醫書이다. 이것을 1245년 孫炬卿이 重刊하면서 聞人耆年の 「備急灸法」에 佚名氏의 「騎竹馬灸法」과 佚名氏의 「竹閣經驗備急藥方」을 補入하여 『備急灸法』을 편찬하였다.

聞人耆年은 鍼灸醫家로 활동하였는데 구체적인 生沒年代는 자세하지 않다. 樵李(오늘날 중국의 浙江省 嘉興)사람으로 聞人은 複姓이고, 耆年은 名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醫書를 즐겨 읽었고, 고향에 머물면서 50년간 醫술에 종사하였다. 그는 宋代名醫인 張渙을 추앙하였고, 張渙의 「雞峰普濟方」과 『備急』이 聞人耆年の 「備急灸法」을 저술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⁵⁾

孫炬卿에 대해서는 宋代의 사람으로 生沒年代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序文을 통하여 孫炬卿은 母親이 病患으로 죽은 후에 蜀本 『灸經』(聞人耆年の 「備急灸法」을 의미함.)과 「竹馬灸法」을 우연히 얻었으며 여기에 「竹閣經驗備急藥方」을 더하여 孫炬卿 『備急灸法』을 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孫炬卿의 『備急灸法』은 1245년에 출판되었고

- 1) 梁立武. 從備急灸法看聞人耆年對針灸臨床學的貢獻. 針灸臨床雜誌. 1期. 1988.
- 2) 周建偉. 淺論備急灸方灸治急症之學術特色. 上海鍼灸雜誌. 15(3). 1996.
- 3) 袁宜勤. 備急灸法的學術價值. 中國民間療法. 9期. 2008.
- 4) 신재혁 외 4인. 『備急灸法』중 『千金方』 引用文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5). 2010.
- 5) 劉冠軍. 中醫灸療集要.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일본으로 전해졌다. 그 후 중국에서는 失傳되었고, 일본에 유일본이 남았는데 『三三醫書』의 編者인 裘慶元의 友人인 陳衡山에 의해 수집되었고, 중국에서 다시 출판되었다.

2. 「騎竹馬灸法」의 구성

騎竹馬灸法은 癰疽, 發背 등의 疔瘡를 치료하는 灸法인데 「騎竹馬灸法」에서는 우선 구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더불어 그림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뜸뜨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癰疽의 發病원인과 기전을 설명하였으며, 癰疽疾患을 치료하는 8개의 처방을 소개하고 있다.

3. 騎竹馬灸法 방법

騎竹馬灸法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發背, 腦疽, 腸癰, 牙癰, 四肢下部 一切의 癰疽, 疔瘡, 魚臍, 鬼箭, 癩疽等 혹은 胸腹部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거나 風痺腫痛, 緊硬赤腫, 惡核癰癧, 發奶등의 疔瘡에 속한 것을 치료한다. 먼저 환자를 안석에 앉히고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의 팔을 굽힌다. 팔뚝마디인쪽 脛骨의 중간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팔을 잡고 붉은 점을 찍는다. 그림은 위쪽의 第一이다. 다음은 활이 끈게 지지하는 모양처럼 팔을 끈게 펴고, 붉은 점을 찍은 구멍부위의 팔뚝 脛骨 上에서부터 대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가운데 손가락의 尖부위까지 붙이면서 측량하며 손톱을 넘기지 않는다. 그림은 위쪽의 第二이다. 다음은 가운데손가락을 구부리고 측면을 보면 가운데 마디에 두 개의 빗살무늬가 있는데 대나무 껍질을 눌러 고정한다 후 마디만큼을 절단하면 절단한 마디가 一寸이 된다. 측량한 가로무늬의 各一寸은 一寸이 된다. 그림은 위쪽의 第三이다. 다음은 대나무를 두 개의 탁자 위에 놓고, 담요나 이불을 깔아 고정시킨다. 환자는 옷을 벗고 속옷을 입은 채로 허리띠를 풀고, 걸쳐놓은 대나무에 올라탄다. 몸은 벽에 기대어 것처럼 끈게 세우고 대나무에 尾閭骨을 걸쳐서 앉는다. 두 다리는 힘을 빼고 땅에 닿지 않게 하며, 몸을 똑바로 세워 걸쳐 앉는다. 두 사람이 좌우에서 잡아 고정을 시키고 옆으로 넘어지거나 굽어지지 않게 한다. 尾閭骨을 대나무 위에 붙여 앉고, 처음 팔부터 가운데손가락

肉尖까지 측량한 대나무 껍질을 尾閭骨로부터 등 척추의 가운데로 올라가 대나무 껍질이 끝나는 곳에서 늘려 멈춘다. 다음은 횡문 二寸을 측량한 대나무 껍질을 가로로 놓고 끝나는 곳 양 끝에 붉은 점을 찍으면 그 점이 穴자리가 된다. 서로의 거리는 각 一寸이 된다.

그림은 위쪽의 第四이다. 各 五壯 혹은 七壯 뜬을 뜨고, 艾炷는 三分의 지름만큼 艾를 종이에 말아서 炷를 만들며, 단단하고 팽팽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많은 壯數를 뜬 필요 없고, 아픈 곳이 어디에 생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으며, 이미 破했는지 未破했는지 간에 아물러서 이 방법으로 뜬을 뜨면 나올 수 있다.⑥

시행하는 방법이 마치 竹馬를 올라타는 모양을 하기 때문에 騎竹馬灸法이라고 이름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그림을 곁들여 더욱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팔을 굽히면 팔꿈치 안쪽의 중간에 들어간 구멍이 있다. 즉 팔뚝마디안쪽 횡문의 가운데이며 상대로 하여금 팔을 잡고 붉은 점을 찍는다.(그림 1) 다음은 활이 곧게 유지하는 것처럼 팔을 편다. 앞서 붉은 점을 찍은 곳, 즉 팔 안쪽 橫紋에서 부터 대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가운데손가락 肉尖까지 붙여 나가 헤아리며 손톱을 넘지는 않는다.(그림 2) 다음은 가운데 손가락을 굽히고 측면에서 보면 가운데 마디 굽어진

부분에 두 개의 斜紋이 있는데, 이것으로 寸을 측량하는 법으로 한다. 양 끝을 각 一寸으로 하며 대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二寸만큼을 헤아려 절단한다.(그림 3) 다음은 옷을 벗고 몸을 벽에 붙인 것처럼 바로 세우고 대나무 위에 앉아 두 다리에 힘을 뺀다. 발은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두 사람이 옆에서 부축해 준다. 尾閭骨을 대나무 위에 붙이고, 尾閭骨로 부터 위로 처음 대나무 껍질로 측정한 것(가운데 손가락부터 팔뚝안쪽 횡문까지를 측정한 것)을 이용하여 등 척추의 가운데를 따라 올라가 끝나는 곳에 붉은 점을 찍는다. 붉은 점을 찍은 곳에서 앞서 측정한 二寸의 대나무 껍질을 가로로 하여 양 끝에 점을 찍으면 이곳이 穴이 된다.(그림 4) 다음은 艾를 종이에 말아서 알맞게 잘라 艾炷를 만들고, 몸은 앉은 채로 바로 세워 艾炷를 부착한다. 부착이 잘 안 되면 약간의 침을 이용하여 붙인다. 조금이라도 몸을 굽히면 穴자리가 어긋나므로 절대 몸을 굽혀서는 안 된다.⑦.



그림 1. 第一圖形

6) 治發背腦疽 腸癰牙癰 四肢下部一切癰疽疔瘡 魚臍鬼箭癰疽等 或胸腹不測 風痺腫瘤 緊硬赤腫 惡核癰癤 發奶之屬 先令病人憑几曲手男左女右 看臂腕節中間 有一偃孔 令把臂相對者 以朱點定了 有圖在後第一 次用挺直其臂 如持弓之直 却見先來用朱點定偃孔處 正在臂節橫紋上 就以篋自橫紋貼肉量至中指肉尖而止 不過指爪 有圖在後第二 次用屈中指 側看中節有兩斜橫縫 就用篋壓定截斷 此是一寸 須量橫紋各一 則乃各一寸也 有圖在後第三 次用竹扛一條 兩卓子前後閣起 以篋褥被帛等藉定令穩 令人脫去襯衣 解開褲帶 騎定竹扛 用身壁直 靠尾閭骨 坐於竹扛上 兩足懸虛 俱不要著地 懸身正直 要兩人左右扶定 勿斜側僵曲 要以尾閭骨正貼在竹扛上 却就竹扛上 用初頭自臂腕量 至中指肉尖 竹篋子自尾閭骨量 上脊背之心 盡其所壓之篋而止 却用前所壓橫紋二寸 則子橫安篋盡處 用朱點定兩頭是穴 相去各一寸也 有圖在後第四 各灸五壯或七壯 艾炷及三分闊 以紙軸艾作炷 十分緊實方可用 壯數不可灸多 不問癰生何處 已破未破 並用此法灸之 無不安愈 聞人善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37-38.

7) 先曲手 看臂腕節中間有一偃孔 便是臂節橫紋端的中心 令對坐 把臂之人以朱點定 次用挺直其臂 如持弓之直 却見先來用朱點定偃孔處 正在臂節橫紋上 就以竹篋自橫紋貼肉量上至中指肉尖而止 不過指爪 次用屈中指 側看中節屈處 有兩斜紋 此是量寸法所用 兩頭各一寸之 則以薄篋量二寸 折斷篋 次解衣褲等 用身壁直 靠尾閭骨 坐於竹扛上 兩足懸虛 俱不着地 要兩人扶坐 以尾閭骨正貼在竹扛上 却就尾閭骨上 用初頭竹篋子量 上脊背之心 蓋所量之篋而止 用朱點定了却用前所量二寸 則子橫安點處 兩頭是穴 次用紙軸艾 令實切爲艾炷 身壁直坐 即安艾炷 難安時 微用津唾沾粘之 略才曲身 其穴便差 切不可曲身 聞人善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40-43.



그림 2. 第二圖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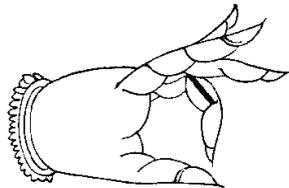


그림 3. 第三圖形



그림 4. 第四圖形

뜸뜨는 혈자리를 잡는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장의 그림을 곁들이고 있다. 이는 비급구법에서 19장의 그림을 곁들여 뜸뜨는 방법을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4) 「騎竹馬灸法」에 수록된 처방

「騎竹馬灸法」에는 癰疽를 치료하는 處方으로 菉豆乳香托裏散, 神異膏, 國老膏, 五香連翹湯, 轉毒散, 礬黃丸, 鷺鷥藤酒, 川芎通氣散 등 모두 8개의 處方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菉豆乳香托裏散方 毒氣를 밀어내어 心으로 入하지 않게 하는 方
菉豆粉一兩 乳香半兩

위 약재들을 가루 내어 균일하게 섞은 후 生甘草水에 타서 사용한다.⁸⁾

國老膏方 毒氣를 內入하지 못하게 하는 方

甘草 큰 것, 二兩, 가늘게 찢어서 흐르는 물에 하루 동안 담고, 부드러워지면 진한 즙을 내어 찌꺼기는 버리고 다시 명주에 걸러서 銀石器에 넣어 약한 불로 膏를 만들어 사기그릇에 넣어 보관을 한다.

매 복용 한두 술가락 정도의 양을 술에 타서 복용을 하며, 白湯에 타서 복용해도 역시 효과가 있다. 약간 설사가 나는 것을 法度로 한다.⁹⁾

五香連翹湯方 鬱毒의 氣를 소산시키는 처방

木香 三分 不見火 **沉香** 三分 不見火 **連翹** 全者 가시를 제거한 것 三分 **射干** 三分 **升麻** 三分 **木通** 三分 마디를 제거한 것 **黃芪** 三分 결가지가 없는 것, 生用 **丁香** 半兩 가지를 제거한 것, 不見火 **乳香** 半兩 별도로 가루 낸 것 **大黃** 微炒 半兩 땀은 것 **甘草** 半兩 生用 **麝** 眞者 一錢半 별도로 가루 낸 것 **獨活** 三分 오래된 羌活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桑寄生** 三分 진흙을 구하지 못하면 배도 된다.

14개 약재를 가루내고 균일하게 섞어 每服 三錢에 물 한잔을 붓고 七分의 양이 되도록 달이고, 찌꺼기를 제거한 후 복용한다. 아울러 찌꺼기를 銀器에 銀 一片과 같이 넣어 달여도 역시 효과가 있다.¹⁰⁾

轉毒散方 疔의 뿌리를 없애고 元氣를 건들지 않는 方

車螯 껍질이 진한 자색인 것을 소금과 진흙에 섞어 굳게 만들고, 紅色이 될 때까지 불에 달군 후 식혀서 가루 낸다. 一兩 **甘草** 一兩 生用 **輕粉** 半錢 위 약재들을 곱게 가루를 낸다. 매번 四錢에 瓜蒌 한 개를 껍질을 벗겨 함께 진하게 달이고, 달인 술 한 대접에 다시 섞어 五更에 복용한다. 심한 자도 二服을 넘기지 않아서 낫는다.¹¹⁾

8) 菉豆乳香托裏散方 托毒氣不入心 菉豆粉一兩 乳香半兩 上爲末 和勻生甘草水調下. 聞人耆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50.

9) 國老膏方 使毒氣不入內 甘草大者 二兩 細雜 長流水浸一宿 揉令藥汁濃 去盡筋碎 再用絹濾過 銀石器內慢火熬成膏 以瓷器收貯 每服一二匙 和酒調服 白湯調下亦得 微利爲度. 聞人耆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50-51.

10) 五香連翹湯方 疎散鬱毒之氣 木香三分 不見火 沉香三分 不見火 連翹全者 去蒂 三分 射干三分 升麻三分 木通三分 去節 黃芪三分 練無又附者 生用 丁香半兩 揀去枝 不見火 乳香半兩 別研 大黃微炒 半兩 剉 甘草半兩 生用 麝眞者 一錢半 別研 獨活三分 買老羌活用 桑寄生三分 難得眞者 缺之亦可 右十四味爲粉末 和勻 每服三大錢 水一盞 煎至七分 去滓服 並滓煎 用銀器煎藥 入銀一片 同煎亦得. 聞人耆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51.

11) 轉毒散方 利去病根不動元氣 車螯紫背光濃者 以鹽泥固濟 數通紅 候冷淨取末 一兩 甘草一兩 生用 輕粉半錢 右一處爲細末 每服四錢匕 濃煎瓜蒌一

礬黃丸方 毒을 밀어내어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처방

白礬 一兩 가루 낸 것 黃蠟 半兩 백반 가루와 함께 녹여서 섞은 것

위 약재를 녹두만한 丸으로 만들어 매 五十丸을 따뜻한 술과 달인 마이에 타서 때에 상관없이 복용한다.¹²⁾

醋熨法 膿이 未成할 때 찢하면 散해지고, 이미 膿이 생겨서 찢를 하면 膿이 나온다.

牛皮膠를 냄비에 넣고 약간의 물을 넣어 용해시킨 후, 그것을 종이에 퍼서 바르고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을 뚫고 이와 같이 여러 장을 만든다. 이런 다음 膠紙를瘡에 붙이고, 구멍이 난 곳에 瘡頭를 나오게 하면 이로써 毒氣가 빠져 나가게 된다. 좋은 醋를 작은 술에 담아서 끓인다. 부드러운 손수건 두 장을 醋에 담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환부에 문지른다. 커나루로 집게를 만들어서 이용한다. 마땅히 뜨겁게 하여 문지르기를 數百度하는데 膠紙 上에 빙글빙글 돌리면서 문지르며 멈추지 말고 膠紙가 찢어지면 다시 바꾸어 문지른다. 만약 가려우면 더욱 더 문지르고, 가렵지 않으면 문지르기를 멈춘다. 만약 膿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면 쉬지 말고 膿이 사라질 때 까지 문지른다. 3~5일 동안 간헐적으로 문질러 준다. 문지르면 毒이 빠져나와 膏藥에 붙고 구멍을 통해 毒氣가 빠져나간다. 문지르고 난 직후에는 瘡에서 血水가 나오며 가렵고 아픈 것이 모두 그치게 된다. 후에는 문지르기를 멈추고, 혹은 문지르기를 멈추려면 膠를 등에 바르면 된다. 貫衆湯을 달여 그 탕으로 씻으면 바로 낫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문지르고, 한편으로는 陰陽證을 구분하여 證에 따라서 藥을 쓰는 것으로 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그 효과는 크고 신묘한 효험이 있어 절대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된다. 醋醋는 즉 米醋를 말하는 것이다.¹³⁾

筒去皮 煎酒一椀調下 五更服 甚者不過二服. 聞人者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51-52.

12) 礬黃丸方 專托毒不攻內 白礬 一兩 爲末 黃蠟 半兩 溶開和白礬末 右旋爲丸 如菉豆大 每服五十丸 用溫酒和些煎熱麻油送下 不以時候. 聞人者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52.

13) 醋熨法 未成膿熨之則散 已成膿熨之則出 牛皮膠 銚中略入水溶釋 攤刷皮紙上 中心開一圓竅 如此作數片 却以膠紙貼瘡上 就以竅子出了瘡頭 以出毒氣 用好醋 以小鍋煮在面前令沸 用軟布手巾段兩條 蘸醋更互熨之 用竹夾子夾上 須乘熱蒸熨數百度 就膠紙上 團團熨不住手 紙破再換 如痒愈熨 切不可痒而止 如有膿從竅中流 更自熨 歇落 熨三五日不妨時暫歇 熨

驚鷲藤酒¹⁴⁾

李氏方에 말하기를 “시골 벽촌에 사는 사람이 마침 癰疽로 고통 받고 있었고, 돈이 없어 비싼 약재를 살 돈이 없으니 단지 驚鷲藤酒를 서둘러 복용하였다. 이미 땀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불문하고 연속으로 數劑를 복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盒法 處方은 뒤에 기재되어 있다. 을 하였으며, 후에 疽는 破하게 되었고, 나아가 神異膏 處方은 李氏集驗背疽方論에 있다. 를 붙였다. 發眉, 發頤, 發背 등에 누차 사용하여 효과가 있었고, 腫이 생기면 가능한 多服하여 효과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前後에 이 法을 사용하여 치료함에 있어 田夫野老에게 百發百中 하였다.” 고 하였다.

蘇沈良方에 말하기를 “驚鷲藤은 一名 忍冬草로 葉尖은 둥글며 蔓生이고 葉의 뒷면에는 털이 있다. 田野 등지에 울타리를 이루며 곳곳에 흩어져 있다. 兩葉은 마디마다 두 개씩 붙어서 나고, 春夏에 열리는 것은 葉梢가 뾰족하고, 연한녹색을 띠며 葉은 약간 얇다. 秋冬에 열리는 것은 견고하고 두터우며, 葉은 둥글고 색은 진하다. 서리를 맞은 것은 葉이 말아져 있고 紫色을 띠며, 꽃이 피면 향이 극에 이르러 멀리에서도 그 향을 맡을 수 있다. 처음에 개화를 하면 꽃은 白色이고 數日이 지나면 黃色으로 변한다. 매 가지마다 黃色과 白色이 서로 있어 一名 金銀花라 한다. 꽃 사이에 꽃술들이 실처럼 있어 一名 老翁須라 하고, 一名 金銀股라 한다. 겨울에는 葉이 둥글고 두터운 것이 벽려(줄사철 나무)와 같아서 一名 大薛荔라 한다. 꽃의 향이 향기로운 것이 마치 모리나 서향 등과 같은 부류와 유사하다. 古人들은 단지 補藥으로만 생각했으나 지금은 疽를 치료하는데 기이한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

驚鷲藤 어린 싹의 잎 五兩, 鐵器를 사용하지 말고 木器를 이용하여 잘게 뺀다. 甘草 一兩 생것을 뺀아서 가루로 만든다.

二味 약재를 질그릇에 넣고 물 二盞을 넣어 文武火로 천천히 一盞이 될 때까지 달이고, 無灰黃酒 一盞을

時更以好拔毒膏藥貼之 仍出竅子以泄毒氣 其熨時直候瘡上有血水來 痒止痛止 然後住熨 或要住熨 而膠粘於背 可煎貫衆湯 洗之即脫 一面熨了一面看陰陽證 隨證用藥 此法甚簡 而功甚大 委有神驗 切不可忽 醋醋即米醋也. 聞人者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52-53.

14) 驚鷲藤 : 聶藤이라고도 하며 忍冬草나 金銀藤의 異名임.

넣어 수차례 끓여오르도록 달인다. 찌꺼기를 없애고 三服으로 나누어 약간 따뜻하게 하여 하루 동안에 연속해서 다 마신다. 病勢가 重한 者는 연속하여 數劑를 복용한다. 이미 앞에서 “가히 補藥으로 사용한다.” 고 하였으니 脾가 傷하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大小腸이 通利하는 것을 法度로 삼아서 복용한다.¹⁵⁾¹⁶⁾

蠶絲癰疽法

蠶絲藤의 葉을 多少에 구애받지 않고 取하여 砂盆에 넣어 薑과 無灰黃酒 약간을 넣어 잘 섞는다. 이것을 患處 중심에서 사방 주위로 바르고 중심에 하나의 큰 구멍을 남겨 놓으면 毒氣가 빠져나간다. 아침저녁으로 뚜껑을 바꿔 주며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¹⁷⁾

頭腦의 癰腫을 치료하는 川芎通氣散

天花粉 깨끗하게 씻어서 곱게 가루 낸 것 川芎 불에 쪄지 않은 것으로 곱게 가루 낸 것 川山甲 목 뒤쪽의 甲으로 炒하여 곱게 가루 낸 것 위 약재들을 같은 양으로 나누어 매복 五錢에 瓜蒌 한 개를子和肉을 함께 가루 낸다. 無灰黃酒 一椀에 넣고 찌꺼기를 걸러 내 증탕으로 달여 익힌다. 이 술에다가 약을 타서 식후공복에 연속하여 數劑를 복용한다. 아울러 蠶絲藤酒 매 한 사발에 川芎末 三錢을 섞어 복용하거나, 通氣散을 함께 복용한다. 급한 경우에 이르게 되면 머리를 깎고 蠶法을 한다. 癰疽의 약복용은 서둘러

연속적으로 복용해야만 處方이 능히 病을 치료할 수 있다.¹⁸⁾

聞人耆年의 「備急灸法」에는 灸法을 소개하면서 일일이 출전을 밝혀 놓은 것과는 달리 「騎竹馬灸法」에는 출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癰疽의 原因과 治法을 언급하면서 ‘法當自外以火艾引泄毒氣 然後分陰陽而服藥可也 分陰陽服藥說 備載紹興官庫所刊 李迅與興明州醫家 所刊李世英’¹⁹⁾이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李迅²⁰⁾과 李世英²¹⁾의 『癰疽方論』을 참고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찰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III. 考 察

1. 騎竹馬灸法을 소개한 중국역사

騎竹馬灸法은 宋代 1170년 외과전문 서적인 『衛濟寶書』²²⁾에서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1245년에 孫炬卿이 重刊한 『備急灸法』과 宋代 1263년 외과 전문 서적인 『外科精要』²³⁾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明代에는 『神應經』²⁴⁾, 『針灸大全』²⁵⁾, 『醫學正傳』²⁶⁾, 『針灸聚英』²⁷⁾, 『針灸大成』²⁸⁾ 등의 醫書에 騎竹馬灸法의

15) 蠶絲藤酒 李氏方云 病癰疽人 適有僻居村疔 及無錢收買高貴藥材 只得急服蠶絲藤酒 不問已灸未灸 連服數劑 並用蠶法 方在後 候其疽破 即以神異膏 方在李氏集驗背疽方論 貼之 亦屢用取效 應 發眉發頤發背 但是腫發 盡量多服 無不取效 前後用此醫田夫野老 百發百中 蘇沈良方云 蠶絲藤一名忍冬草 葉尖圓 蔓生 葉背有毛 田野籬落 處處有之 兩葉對生 春夏開 葉梢尖 面色柔綠 葉微薄 秋冬即堅厚 色深而圓 得霜則葉卷而色紫 開花極芬芳 香聞數步 初開色白 數日則變黃 每枝黃白相間 故一名金銀花 花間曳蕊數莖如絲 故一名老翁須 一名金銀股 冬間葉圓厚似薛荔 故一名大薛荔 花氣可愛 似末利瑞香輩 古人但以爲補藥 今以治疽奇驗 蠶絲藤 嫩苗葉五兩 不得犯鐵器 用木搥碎 甘草一兩 生用剉爲末 右二味 同入瓦器內 用水二盞 文武火緩緩煎至一盞 入好無灰黃酒 一大盞 同煎十數沸 濾去滓分爲三服 微溫 連進一日一夜 喫盡 病勢重者 連進數劑 既云可作補藥 必然無慮傷脾 服至大小腸通利爲度 聞人耆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54-55.

16) 원문에는 이 뒤에 蠶絲藤圓形이 수록되어 있음

17) 蠶絲癰疽法 蠶絲藤 取葉不拘多少 入砂盆內爛碾 入無灰黃酒少許 調和稀稠 得所塗蠶患處四圍中心 留一大穴 以洩毒氣 早晚換蠶 不可間斷 聞人耆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p.56-57.

18) 治頭腦上癰腫川芎通氣散 天花粉洗淨爲細末 川芎不見火 爲細末 川山甲頭項上甲 炒爲細末 右等分 每服五錢 重用瓜蒌一箇 取子並肉研細 入無灰黃酒一椀 澆之 濾去滓 重湯煎熟 却將此酒來調藥 食後稍空服 連進數劑 並用前方蠶絲藤酒 每椀加川芎末三錢 重調下 與通氣散更互服之 及急刺去髮 用前方蠶法 大凡癰疽服藥 須是作急連進 方能救療 聞人耆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57.

19) 聞人耆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50.

20) 南宋의 醫學家로 字는 嗣立이며 『集驗背疽方』을 저술하였다.

21) 南宋의 醫學家로 字는 少穎이고 號는 雪岩이다. 附子, 雄黃 등으로 陰疽를 치료하였으며, 50년간의 치료 경험을 정리하여 『癰疽辨疑論』을 저술하였다. 현재 일본에 초본이 남아 있다.

22) 東軒居士. 『衛濟寶書』. 人民衛生出版社. 1956. pp.27-31.

23) 陳自明. 『外科精要』.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61.

24) 李鼎. 『針灸玉龍經神應經合注』. 1995. p.89.

25) 徐鳳. 『針灸大全』.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71.

26) 虞搏. 『醫學正傳』. 人民衛生出版社. 1981. p.302.

27) 高武. 『針灸聚英』.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1. p.141.

내용이 있으며, 清代에 『針灸易學』²⁹⁾, 『經穴彙解』³⁰⁾, 『針灸逢源』³¹⁾, 『針灸集成』³²⁾ 등에도 騎竹馬灸法에 대한 내용이 있다.

宋元시대에 釋繼洪이 저술한 『澹寮集驗秘方』에는 騎竹馬灸法을 施行하는데 醫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外科精要』에 수록된 騎竹馬灸法을 舊法이라고 하였고, 孫炬卿『備急灸法』에 수록된 「騎竹馬灸法」을 新法이라고 하였다. 釋繼洪이 新法과 舊法을 구분한 기준은 取穴할 때 환자가 올라타는 대나무를 사람이 직접 떠받치는지 탁자에 대나무를 걸쳐놓는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람이 직접 떠받치는 방법을 舊法이라 하였고, 탁자에 대나무를 걸쳐놓는 방법을 新法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舊法 新法을 구분한 것은 取穴할 때 자세가 안정되었는지 아닌지를 기준한 것으로 보이며, 『神應經』, 『針灸逢源』, 『經穴彙解』 등에서는 新法이 기재되어 있고, 『針灸大成』, 『針灸聚英』, 『針灸大成』, 『針灸集成』 등에서는 舊法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針灸易學』, 『醫學正傳』에서는 자세한 取穴方法이 나오지 않고 단지 “騎竹馬法을 이용한다.”고만 하였다.

2. 騎竹馬灸法을 소개한 우리나라 의서

우리나라 醫書 중에 騎竹馬灸法이 기록되어 있는 서적으로는 『東醫寶鑑』, 『廣濟秘笈』, 『針灸經驗方』, 『山林經濟』 등이 있다. 『東醫寶鑑』에는 “癰疽를 치료하는 것으로 騎竹馬灸法을 한다.”³³⁾고 하였으며 자세한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廣濟秘笈』에는 “騎竹馬穴에 땀을 뜬다.”³⁴⁾고 하여 取穴方法은 설명하지 않고 일반 穴자리처럼 설명하고 있다. 『針灸經驗方』³⁵⁾과 『山林經濟』³⁶⁾에는 구체적으로 取穴하고 땀을 뜨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取穴方法을 설명하는데 있어 「騎竹馬灸法」에 말하는 臂腕節中間有一偃孔 부위를 보다 구체적인 尺澤穴로 記載하고 있다. 그러나 新法과 舊法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3. 「騎竹馬灸法」 처방의 인용문헌 분석

「騎竹馬灸法」에는 癰疽를 치료하는 處方으로 菘豆乳香托裏散, 神異膏, 國老膏, 五香連翹湯, 轉毒散, 礬黃丸, 驚鷲藤酒, 川芎通氣散 등 모두 8개의 處方이 있다. 處方에는 李迅의 醫書와 李世英의 『癰疽方論』을 갖추어 기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李迅의 醫書는 현재까지 『集驗背疽方』만이 현존하고 있고, 「騎竹馬灸法」에 나오는 처방을 『集驗背疽方』에서 찾아보면 五香連翹湯方, 神異膏, 驚鷲藤酒 세 개의 처방이 있다. 菘豆乳香托裏散은 『本草綱目』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원래의 처방명은 護心散이며 『李嗣立外科方』에서 引用하였다.³⁷⁾ 李嗣立은 李迅의 字이며 『李嗣立外科方』은 李迅의 또 다른 外科方으로 失傳한 醫書이다. 이로써 李迅의 처방이 引用된 것은 五香連翹湯方, 神異膏, 驚鷲藤酒, 菘豆乳香托裏散으로 모두 4개이며 치료 병증과 효능, 약제조성이 모두 같다. 李世英의 『癰疽方論』은 『癰疽辨疑論』으로 현재 일본에 抄本만 남아 있고 아직까지 출판된 서적은 없다. 나머지 처방들을 宋代 1245년 이전 醫書에서 찾아보면 國老膏는 『普濟本事方』, 『三因方』에 있고, 轉毒散은 『衛濟寶書』, 『聖濟總錄』, 『三因方』에 있으며 치료 병증과 효능, 약제조성이 모두 같다. 礬黃丸은 1245년 이후의 醫書인 『外科精要』에 나타나고, 川芎通氣散은 현존하는 醫書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

4. 「騎竹馬灸法」 처방의 제형과 효능

전체 8개의 처방은 모두 癰疽를 치료하는 것으로 처방의 제형은 散劑, 膏劑, 湯劑, 丸劑, 酒劑로 5가지 제형이 있다. 散劑는 菘豆乳香托裏散, 轉毒散, 川芎通氣散이 있고, 膏劑는 神異膏, 國老膏가 있고, 湯劑는 五香連翹湯이 있고, 丸劑는 礬黃丸이 있고, 酒劑는

28) 楊繼洲. 『針灸大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1139.

29) 李守先. 『針灸易學』.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3.

30) 原昌克. 『經穴彙解』. 中醫古籍出版社. 1982. p.494.

31) 李學川. 『針灸逢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212-213.

32) 勉學堂. 『針灸集成』. 人民衛生出版社. 1994. p.45.

33) 許俊. 『東醫寶鑑』. 한미의학. 2001. p.894.

34) 李景華. 『廣濟秘笈』. 癸丑文化社. 1990. p.29.

35) 許任. 『針灸經驗方』. 杏林書院. 1945. pp.73-74.

36) 洪萬選. 『山林經濟』. 농촌진흥청. 2003.

37)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古籍出版社. 1994. p.645.

鷺鷥藤酒가 있다. 효능을 살펴보면 菘豆乳香托裏散, 國老膏, 五香連翹湯, 轉毒散, 礬黃丸은 毒氣가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처방이고, 川芎通氣散은 머리에 생긴 癰腫을 치료하는 처방이고, 鷺鷥藤酒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鷺鷥藤을 재료로 삼아 癰疽를 치료하는 처방이다. 內服藥 外에도 外治療法으로 醋熨法과 蠶散癰疽法이 있는데 효능은 毒氣를 밖으로 빼내는 치료방법이고 이용된 재료는 醋熨法에 醋를 사용하였고, 蠶散癰疽法에 鷺鷥藤을 사용하였는데 醋와 鷺鷥藤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임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騎竹馬灸法」의 騎竹馬灸法은 癰疽, 發背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灸法으로 12세기 初宋代 때부터 이미 널리 이용이 되었으며 明代 清代의 여러 針灸書籍 및 外科書籍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서에도 騎竹馬灸法이 癰疽를 치료하는 전문적인 灸法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廣濟秘笈』에는 ‘騎竹馬穴’이라 하여 특정 穴 자리로 구분해 놓았다. 「騎竹馬灸法」은 癰疽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內經』의 문장을 인용하여 癰疽의 발병원인과 기전을 설명하였고, 「騎竹馬灸法」에 나오는 8개의 처방은 歷代醫家들의 癰疽疾患 치료에 효과가 우수한 것들만 인용하여 모아놓은 것이다. 처방의 劑型은 散劑, 膏劑, 湯劑, 丸劑, 酒劑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이용하였으며 부위별, 효능별로 구분하여 사용함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 할 수 있게 하였다.

V. 參考文獻

1. 梁立武. 從備急灸法看聞人耆年對針灸臨床學的貢獻. 針灸臨床雜誌. 1期. 1988.
2. 周建偉. 淺論備急灸方灸治急症之學術特色. 上海鍼灸雜誌. 15(3). 1996.

3. 袁宜勤. 備急灸法的學術價值. 中國民間療法. 9期. 2008.
4. 신재혁 외 4인. 『備急灸法』중 『千金方』引用文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3(5). 2010.
5. 劉冠軍. 中醫灸療集要. 江西.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9.
6. 聞人耆年 編. 備急灸法, 歷代中醫珍本集成.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0. p.50, 51, 52, 57. pp.37-38, 40-43, 50-51, 51-52, 52-53, 54-55, 56-57.
7. 東軒居士. 『衛濟寶書』. 人民衛生出版社. 1956. pp.27-31.
8. 陳自明. 『外科精要』.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161.
9. 李鼎. 『針灸玉龍經神應經合注』. 1995. p.89.
10. 徐鳳. 『針灸大全』.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71.
11. 虞搏. 『醫學正傳』. 人民衛生出版社. 1981. p.302.
12. 高武. 『針灸聚英』.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1. p.141.
13. 楊繼洲. 『針灸大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 p.1139.
14. 李守先. 『針灸易學』.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3.
15. 原昌克. 『經穴彙解』. 中醫古籍出版社. 1982. p.494.
16. 李學川. 『針灸逢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pp.212-213.
17. 勉學堂. 『針灸集成』. 人民衛生出版社. 1994. p.45.
18. 許俊. 『東醫寶鑑』. 한미의학. 2001. p.894.
19. 李景華. 『廣濟秘笈』. 癸丑文化社. 1990. p.29.
20. 許任. 『針灸經驗方』. 杏林書院. 1945. pp.73-74.
21. 洪萬選. 『山林經濟』. 농촌진흥청. 2003.
22.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古籍出版社. 1994. p.645.